



3면

새로운미래 "마지막 불씨 살려달라"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음 2월 10일) 제34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해 도내 창업기업 증가율 5.2% '전국 최고'

중기부 발표 창업기업 동향 분석 결과... 4만3367곳 집계
전국은 6% 감소... 시도별로 전북자치도·전남도만 증가
전북, 민선8기 들어 공격적인 창업정책 추진 효과 '특독'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이 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창업기업이 전년대비 6.0%(7만18,862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년도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도 증가했다.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23년 창업기업 시도별 동향을 보면, 전북자치도와 전남(1.5%)만 증가했으며, 전북자치도는 5,04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2022년 4,828개)했다.

업종별로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84.9%↑), 정보통신업(43.8%↑), 금융보험업(27.5%↑), 전기·가스·공기업(25.7%↑), 시설관리·임대업(12.2%↑) 분야에서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창업기업의 증

가는 민선8기 들어 창업지원 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중기부 공모사업에서 2022년 창업중심대학(전북대), 재도전패키지(원광대)에 이어, 2023년 예비(창조센터), 도약패키지(탄소산업진흥원)가 선정돼 2026년까지 호남권 최대 규모인 4개 사업, 연간 1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예산 감액에 따른 규모축소로 공모 탈락한 초기창업패키지를 대체하기 위해 도 자체예산으로 전북형 창업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수요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TIPS운영사 2개사를 유치하여 TIPS 도전기업 20개사 발굴하고 TIPS 기업으로 8개사가 선정(2022년 2개)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는 TIPS운영사를 4개사로 확대하여 레드바이오, 기후테크, 미디어테크 등 전북자치의 미래산업인 닥터크 중심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뿐만 아

니라 전라감영타워에 마련된 키움공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벤처펀드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9~2023년까지 조성한 전북도 출자 벤처펀드(조성 2,006억원, 출자 208억원)는 5년 간 384억원을 투자해 총 1,831억원 규모의 공동·후행투자를 유도했다.

AI기반 참고물류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쥬와따]는 2022년도부터 전북펀드를 통해 총 15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이후 CES혁신상 3년 연속(2022~2024년) 수상과 함께 아카유니콘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는, 민선8기 목표인 1조원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등과 연계 2,13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4,8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민간참여형 벤처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초기투자자 육성, 전북자치도·대·중견기업 상생협력,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출자분야 다변화에도 나선다.

전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창업은 기업유치와 함께 전북자치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대축"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창업기업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전북자치도를 이끌 산업분야에서 창업과 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사진 가운데)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 구간 도로 확장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양 지역간 연결성 강화

새만금~혁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힘 모으기로

전북 지역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구간에서 도로가 확장돼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동반성장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상생협력을 이어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을 핵심으로 하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은 3차로인 에코시티 구역과 전미119안전센터에서 시작하는 2차로 삼봉지구 구역이 이어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완주 삼봉지구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절실하다. 이번 병목구간 도로확장(2차로→3차

로) 공동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 지역간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계 진봉에서 전주 장동 구간(38km)의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등 새만금 지역과 전북혁신도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11차 협약은 지난 2월 10차 협약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상생협력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교통·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6건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현장행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잡고 더욱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 교통문제 해결 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며 "아울러,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포트홀'

긴급보수반 권역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파임 이른바 '포트홀' 복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1~3월 동안 강우량이 많은데다 도로가 반복적으로 얼었다가 녹아 포트홀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신속 복구를 위한 상시 순찰·보수 대책을 추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들어 포트홀 긴급보수반을 4개 권역별로 전문업체와 단기계약체결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기간동안 지방도와 위임국도 주요도로 273.7km를 대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전 직원을 동원해 설 명절 전 포트홀 일제조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 도로 보수반 및 소파보수 단기계약 업체를 통해 긴급 도로 보수를 실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준비 박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추진위 구성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 이하 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글서예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2022년 '한글서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과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2023년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학술연구 공모를 통한 한글서예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작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신규종목 신청이 전북도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9월 문화재청에 신규 종목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월 문화재청에서 발표

한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한글서예'가 신규 종목 지정 조사대상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및 서예 단체 대표, 그리고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한글서예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편 '(가칭)한글서예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한글서예가 2024년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될 수 있도록 한글서예의 무형유산 가치 홍보, 서명 운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